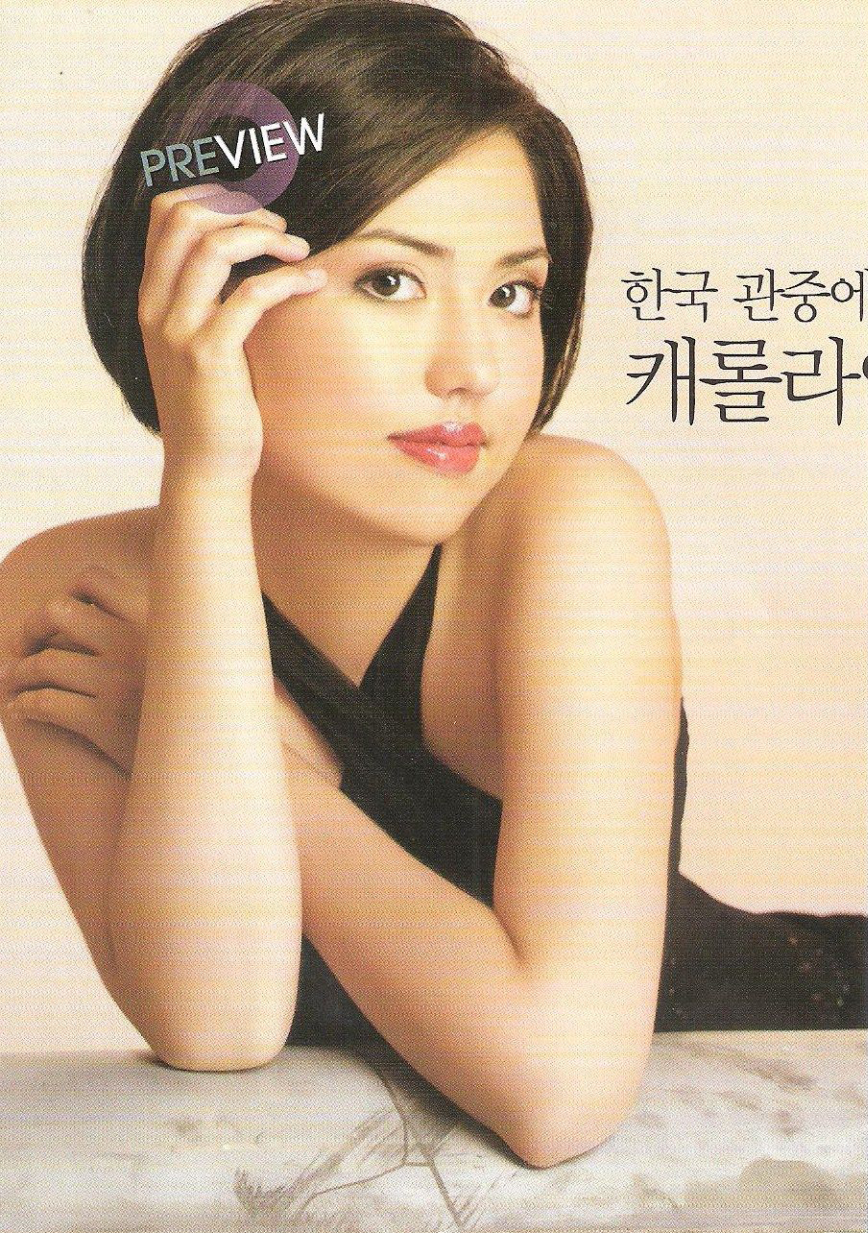


PREVIEW

한국 관중에게 다가갈 독일의 신성 캐롤라인 피셔



한 국국제교류재단은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해외의 젊은 아티스트를 초청해 국내에 소개하는 취지의 공연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오는 5월 25일에는 독일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피셔(Caroline Fischer)의 독주회를 한국의 관중에게 선보인다.

“제가 14세 때 독일 대통령 방한기념 콘서트에 초청 받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절반은 한국인이거든요. 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매우 자랑스러워요. 첫 연주 이후로도 한국에서 협연과 독주회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한국에 다시 올 때마다 이 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씀씀이와 환대가 참 좋아요.”

9세에 베를린 예술대학 예비학교인 올리어스 슈테른 음악원에 입학한 캐롤라인 피셔는 그 후로 한스 아이슬러 음대, 만하임 국립음대, 제네바 음악원, 노르웨이 음악원 등에서 수학하며 전문연주자과정, 전문지도자과정,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독일 청소년 음악콩쿠르, 스타인웨이 피아노 콩쿠르, 쾰른 소피 샬롯 국제 콩쿠르, 독일 클래식 라디오 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녀는 러시아·한국·

독일·몽골에서 독주회를 선보인 한편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서울바로크합주단·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바트 라이헨할필하모니·뉴 베를린심포니 오케스트라·바덴 바덴 필하모니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장의 음반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리스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베토벤과 슈만·리스트의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한국과의 유대감을 나타내기 위해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번 공연은 제 2012년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에요. 한국에서는 8개 도시에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고, 중국의 베이징·심천·광저우·청도와 일본 도쿄에서도 공연합니다. 큰 도시에서 연주하든 작은 도시에서 연주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연주할 때 가장 신경쓰는 것은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제 음악으로 그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독주회에 클래식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회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거든요. 비록 같은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죠.”

피셔는 왕성한 연주 활동을 소화해내고 동시에 2008년부터 컬처클럽 e.V.의 의장을 맡고 있다. 공개 연주회와 전시 등을 개최하며 독일 및 해외의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컬처클럽 e.V.의 의장 활동은 그녀의 폭넓은 관심사와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클래식 음악가이지만 다른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매우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팝이나 재즈 뮤지션 아티스트와 같이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지금처럼 세계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5월 19일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시작될 피셔의 한국 투어는 21일 광주 전남대, 23일 대구 계명대, 24일 철원 화강문화센터, 25일 서울을 지나 29일 여수 엑스포 등으로 이어진다. **글 | 신찬**

캐롤라인 피셔 독주회

5월 25일 19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외
program
베토벤 〈소나타 14번,
Op.27-2〉 ‘월광’, 리스트
〈스페인 광시곡〉·〈헝가리
광시곡 13번 8단조〉·〈라
캄파넬라〉·〈메피스토 왈츠
1번〉, 슈만/리스트 〈환상〉,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